

전남 서남해역 독성 해파리 '비상'

진도·고흥 등 이번달 들어 잇따라 출현 이른 장마로 적조도 50여일 빨라질 듯

진도군 인근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울들어 첫 출현하는 등 전남 서·남해역에서 해파리가 급증하고 있다.
또 예년보다 장마가 빠르고, 수온이 높아 적조도 지난해보다 50여일 빨리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전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 진도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한 것을 비롯해 고흥 등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서 보름달물해파리 등이 발견됐다.
한 주 앞서 진행됐던 해파리 모니터링에서는 해파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

았지만, 1주일만에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 등이 출현했다.
해파리의 유입 속도도 빨라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지난해 모니터링에서는 전남해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주일 만에 어업인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에 발견되는 출현율이 66.7%로 치솟았다.
올해는 해파리 발생지역인 동중국해에 어린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2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돼 예할 활동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이른 장마로 육지의 영양염류가 예년에 비해 빨리 바다에 유입되

고 기온도 높아 올해는 적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 적조가 예년보다 50일 정도 빨리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적조방제 대책반을 구성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패류 양식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별 방제장비 확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해역에서는 38일(8월5일~10월18일)간 적조가 지속돼 여수·고흥 일대 35여가에서 돌돔·전복 등 300여만 마리가 폐사해 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곡성군 멜론소주 '애주랑' 출시

곡성군을 대표하는 멜론소주 '애주랑'(사진)이 출시됐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성 소주 제조방식이 희석식이 아닌 전통증류 방식으로 제조한 전통주 애주랑을 최근 출시했다.
애주랑은 알코올 농도 18%의 비교적 연한 맛으로, 곡성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쌀과 곡성 대표 농산물인 멜론을 발효시켜 만들었다.
젊은 세대, 특히 여성층을 주요 소비자층으로 겨냥해 희석소주의 강한 맛 대신 목 넘김이 부드럽고 멜론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 강점이다.
곡성군은 전통주 개발을 위해 2012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전통주에 대한 제조 전수교육을 하고,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완제품 생산 시설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이 소규모 포장박스를 개발해 부담없이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시장을 무대로 홍보마케팅을 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멜론소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건강하게 자라다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 9일 나주시 봉황면의 한 배 농가에서 농민이 배 과실에 종이 봉지를 씌우고 있다. 배 농가는 배꽃이 만개한 후 30~40일 후 성장과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종이 봉지를 씌운다. <나주시 제공>

나주·보성 '한옥 행복마을' 잇단 준공

전통한옥으로 지은 행복마을이 나주와 보성에 잇따라 들어섰다.
나주시는 지난 7일 다시면 신광리에서 배기운 국회의원과 임성훈 나주시장, 김종운 시의회의장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준공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한옥 30동으로 조성된 신광리 행복마을은 2005년부터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자해 주택단지를 만든 뒤, 2009년 전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돼 보조금 및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완공됐다.
보성군도 최근 조성된 축내리 삼정마을에서 정종해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과 진입도로 확·포장 준공식을 가졌다.
삼정 행복마을은 지난 2008년 12월



보성군에서는 처음으로 행복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그동안 전통 한옥 17동을 신축하고 단지내에 소공원, 우산각, 전통담장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방울토마토, 참다래 등 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소득 창출을 위해 녹색농촌 체험동을 한옥으로 신축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 올해 7억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870m의 도로 폭을 5m로 확·포장함으로써 접근성도 대폭 개선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bson@ /보성=김용백기자 kyb@

중국자본, 미래산단 구원투수 되나

나주시-산동성공사 농업단지 조성 협약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에 중국 산동성의 농산물 가공·유통사업 회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미래산단 분야에 돌풍이 미려졌다.
나주시와 중국 산동성국제상무유한공사 등은 8일 오후 나주 중흥골드스에서 한·중농업융합단지 조성협약 체결식을 하고 구체적인 투자규모와 개발일정, 투자지원 관계 등을 논의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중국투자사는 미래산단 내에 '한·중농업융합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산동성의 농산물 가공 유통사업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개발한다. 또 중국의 원자재 공급능력과 한국의 자본, 식품가공 기술 등을 결합해 한·중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협약이 이행되면 미래산단에 국영기업인 '산동국제상무유한공사'와 중국 농산물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국중동투자촉진센터'가 들어선다.



한·중농업융합단지는 산동성내 최대의 유기농식품단지 운영기업인 '제남윤농업과기유한공사' 등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국내의 가공기술을 통해 공동의 브랜드로 중국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중국투자사는 100만㎡ 규모의 한·중농업융합단지 내에 자국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전담할 대규모 식품업체 2개사와 다수의 협력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성장을 추세에 따라 산단개발을 확대해 집적화된 선박과 자동차 관련 부품공장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성훈 나주시장과 유현림 산동국제상무유한공사 사장은 "한중 양국이 갖고 있는 농업의 강점을 심분 활용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약속했다.
한편 중국투자사 일행은 협약식 후 미래산단 현장과 나주시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APC), 전남식물산업연구소 등을 둘러봤다.
/나주=손영철기자 ybson@

담양에 58만㎡ 산업단지 조성

군-현대엘코 민관합작 540억원 투입 2015년 완공

담양에 자동차 부품 전진기지가 될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9일 전남도와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 근교권의 부족한 공지용지난 해소 위해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대 57만8000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담양군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엘코가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 추진하며 오는 201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대나무 신산업과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바이오식품 관련 업체가 입

주한다.
특히 현대엘코가 직접 산단 조성에 나서는 만큼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생산 업체 등이 대거 입주하는 등 자동차부품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산단이 조성되면 7904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62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담양산단은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물류에 큰 장점이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과 테

크노파크와 가까운 산학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산단 조성도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합작, 특수법인을 설립한 후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나주미래산단이나 동량평산단과 유사한 방식이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현재 여수·광양·대불·빛그린 등 국가산단 5곳, 오천·순천·문평 등 일반산단 29곳 등 총 34곳 243km²가 지정돼 준공됐거나 조성 중이다. 이는 전국 총 501곳 1277km²의 19%를 차지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jg@

강진군 14일까지 음식 홍보 포어 공모

강진군이 강진 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문구(포어)를 공모한다.
강진군은 남도음식의 대표로 맛의 고장임을 나타내고 관광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문구를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강진의 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다.
강진군은 다양한 음식과 맛으로 유명한 강진에서 '맛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홍보문구를 발굴해 '남도음식 일번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에 문구와 포어 각 1건을 확정해 군수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만원을 준다. 강진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주민복지과 위생팀(061-430-3191)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대한민국 행복방정식!



안전은 더하고



방심도 줄이고



관심이 곱해질 때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로 모두가 행복을!
"조심조심 코리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매일 250명이 다치고 6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소중한 일터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조심조심 코리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